

# 도조번역에서의 오류분석과 등가성

김 수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써먹을수 있게 소유하였다는것은 다른 나라 말로 된 책을 읽고 리해하며 우리 말로 정확하게 번역할줄 알뿐아니라 외국어로 말할줄도 알고 들을줄도 알며 글도 지을줄 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번역행위가 서로 다른 두 언어와 문화라는 틀거리에서 수행될 때에는 순수 언어적요소들만이 아니라 시간, 장소, 상황, 사회적지위와 같은 비언어적요소들, 본문의 유형이나 기능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해야만 원문과 번역문사이에 등가대역이 이루어질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도조번역에서의 오류분석과 등가성문제를 론하려고 한다.

언어적측면을 고려한 번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원문의 어휘의 다의성을 해소하여 단의화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를 위해 어휘들의 의미론적결합관계를 문맥속에서 옳게 파악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실례로 도이칠란드어어휘소 heiß(뜨거운)는 sehr warm(아주 따거운), heftig(격렬한), erregend(흥분된, 격동적인)와 같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휘소가 어떤 어휘소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여러 의미들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실현된다. 즉 heiß가 Kaffee(커피)와 련결되면 sehr warm의 뜻(heißer Kaffee)으로, Diskussion(론쟁)과 결합하면 heftig(eine heiße Diskussion) 그리고 Musik(음악)과 결합되면 erregend의 의미(heiße Musik)가 된다.

이처럼 번역은 원문에 있는 어휘소의 전달이 아니라 원문의 문맥적의미를 역문으로 재현하는 과정으로서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맥적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단어의 사전적의미, 문자적의미가 아니라 발화의 의미, 어용적의미를 전달하여야 한다.

번역에서 등가성은 본문류형에 따라 여러가지 내용을 가진다. 즉 내용중심적본문은 내용적등가성, 형태위주의 본문은 형태의 등가성, 효과성을 기본으로 하는 본문은 원문과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등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등가성은 지시대상, 뜻느낌, 본문규범, 어용 및 미학 등 여러 측면에서 론의할수 있다.

이처럼 두 언어본문사이의 등가성문제는 어느 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수 있는것이 아니라 본문의 류형과 기능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들의 문화배경지식과 특징 등에 따라 각이하게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도조번역에서 오역의 원인과 언어간 등가성문제를 언어와 언어교제, 번역실천과 련관시켜 분석하기로 한다.

어휘적측면에서 나타나는 오역문제를 다음과 같은 레문에서 분석해보기로 하자.

도이칠란드어문장 《Der Kerl hat mich übers Ohr gehauen.》을 조선어로 《그 녀석이 내 왼쪽 귀를 때렸다.》로 번역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 경우는 번역자가 도이칠란드어성구 《jn. übers Ohr hauen》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원어의 말마디들을 조선어에 그대로 옮겨놓은 오역이며 《그 녀석이 나를 속였다.》로 번역하는것이 정확한것으로 된다.

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학적오류는 이러한 성구에 대한 인식부족에서만 아니라 어휘나 문장 및 문법의 다의성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Er hat den Schlüssel im

Schloß gelassen.》은 《그는 열쇠를 꽂아두었다.》 또는 《그는 열쇠를 성에 놔두었다.》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Schloß의 정확한 의미는 본문의 련관성이나 발화정황에 의해 명확해질 수 있다.

도조번역에서의 오역은 원어와 역어본문사이의 전달적등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번역에서는 목표어로 이해될 수 있도록 원어의 전달의도를 보존하면서도 역어사용규범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때 언어의 어용론적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례로 도이칠란드어문장 《Jeder findet seine Gretchen.》을 조선어로 《누구나 자신의 그레첸을 찾아낸다.》로 번역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런 경우 조선어속담에 맞는 《헌신도 다 짝이 있다.》가 적합한 번역이다.

번역을 단순한 언어적현상으로만 파악해서는 원어와 목표어본문사이의 등가성관계를 보장하기가 어려우며 언어외적인 요소 즉 언어생활현실과 문화적배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번역의 등가성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

실례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닌다.》를 a)《Er besucht die Kim Il Sung-Universität?》, b)《Er besucht die Kim Il Sung-Universität, deren Absolventen auch die führende Position in der Gesellschaft einnehmen.》, c)《Er besucht alle beste Universität in DVRK.》로 번역하는 경우를 분석해보자. a)의 번역은 어휘적등가성에서는 제기될 문제가 없겠지만 이 언어적표현으로는 종합대학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으므로 정보적가치가 미약한 번역이다. b)의 번역은 필요이상으로 본문을 전개하여 별로 중요치 않은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c)는 필요한 정도의 본문세부화가 이루어진 번역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류형과 그 원인분석을 위해 8개의 도이칠란드어문장에 대한 번역시험을 통하여 분류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유를 류형별로 분류하는데서 난점은 그것이 문법적인 오유인가, 의미적인 오유인가를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례로 《Das Kind liegt an Mutters Brust.》(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다.)에서 《가》대신 《는》을 사용했을 때 이것을 문법적오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미적오유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서며 그것은 문맥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오유의 류형분류와 함께 오유분석에서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오유의 평가문제이다. 어떤 관점에서 번역하는가에 따라 오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말하여 그것이 오유로 규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언어학습 및 언어교수를 토대로 한 체계지향적인 대비언어학에 근거를 둔 오유분석에서는 주로 어휘적등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문맥이나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오유의 규정문제가 생긴다.

실례로 영어문장 《And this is the belief that moves mountains.》를 도이칠란드어로 《Und dies ist der Glaube, der Berge bewegt.》, 《Und das ist der Glaube, der Berge versetzt.》로 번역할 경우를 보기로 하자. 첫번째 경우 어휘나 문장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moves를 bewegen으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오유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이칠란드어에서는 bewegen대신 versetzen의 표현이 사회문화적련관에 적합한 번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bewegen은 본문적등가성을 갖추지 못한 번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번째 실례는 두개의 언어체계에서 언어기호의 똑같은 결합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서 언어체계지향적등가성이고 둘째 실례는 두개의 서로 다른 언어공동체에서 사회문

화적련관에 맞는 본문적언어기호의 똑같은 결합가관계로서 발화지향적등가성이다.

도조번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유형을 어휘, 형태, 문장, 의미-어용, 본문리해정도의 다섯가지로 분류해볼수 있다.

어휘적오유에는 본문에 주어진 어휘의 삭제, 다른 어휘의 첨가, 원어그대로의 사용 등이 있으며 형태적오유에는 시간범주, 단수-복수문제, 정관사나 소유대명사의 번역, 능동-피동 등의 문제가 속한다.

의미 및 어용론적오유에는 의미적으로 조선어규범에서 벗어난 표현, 문장론적오유에는 문장의 미완성, 문장성분의 배열문제를 들수 있다. 본문리해정도와 관련한 오유에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본문내용과 련관이 없는 번역 등이다.

다음의 대표적인 3개의 문장만을 선택하여 오류유형을 분석해보자.

례: 1. Kühe fressen Gräser.(소가 풀을 뜯는다.)

2. Die Mutter trägt ihr krankes Kind auf dem Rücken.

(어머니는 앓는 아이를 등에 업었다.)

3. In ganz Deutschland wird diese Zeitung gelesen.

(거의 모든 도이쉴란드사람들이 이 신문을 읽는다.)

실례 1에 대한 학생들이 제시한 번역대안들은 원어인 도이쉴란드어본문을 내용적으로 리해는 하였지만 목표어인 조선어로는 대부분 적중하지 못하였다. 다시말하여 본문적등가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번역이라하는것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유형은 의미-어용론적인것으로서 주로 의미적련결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서 발생하고있으며 문법적인 오류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일부 경우에는 《뜯는다》대신 《먹는다》와 일부 경우에 조선어에서는 필수적요소가 아닌 복수의 형태를 그대로 대치시켜 생긴 오류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이쉴란드어에서는 어휘나 단수와 복수형태로 구분하는것이 필수적인데 비해 조선어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번역한것으로 설명할수 있다.

실례 2에 대한 학생들의 번역안은 대부분 어휘적의미는 파악되고있지만 본문적등가성을 갖춘 번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관사를 지시대명사의 형태인 《그》로 번역한 학생은 별로 많지 않지만 소유대명사를 많은 학생들이 조선어로 번역을 하고있다. 그리고 《jn auf dem Rücken tragen》을 《등에 업다》, 《등에 업고 나르다》, 《등으로 지다》, 《등에 업고 가다》, 《등으로 옮기다》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서 《등》은 조선어에서는 표현상 잘 쓰지 않는 요소이다. 이처럼 도이쉴란드어의 정관사와 소유대명사의 번역이나 성구를 인식하지 못한 직역에서 의미-어용적 및 문법적오유가 나타나고있다.

실례 3에서는 능동형으로 번역한 학생이 적으며 설사 능동형으로 번역했다해도 시간범주, 어휘, 의미-어용적오유로 하여 타당한 번역으로는 보기 힘들다. 이런 식의 번역은 어휘적의미는 파악했지만 본문적등가성을 충족시키는 조선어에 대응한 표현이 아니다. 실례로 《in ganz Deutschland》를 《도이쉴란드전체에서》, 《도이쉴란드전국에서》, 《전체 도이쉴란드에서는》 등과 같이 표현한다든가 도이쉴란드어의 동사 lesen이 조선어로 《읽다》보다 sehen의 의미인 《보다》가 더 적절한 표현이지만 모두 원어의 의미인 《읽다》그대로 번역하고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어용론적오유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있다.

우리는 도조번역에서의 오류분석과 등가성에 관한 문제들을 비롯한 외국어의 복잡한 언어적특성들을 잘 알고 언어실천활동에서 옹계 활용해나가야 할것이다.